

## 1. 호세아 –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 호세아 1:1

웃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끝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 호세아 6:3, 6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As surely as the sun rises, he will appear; he will come to us like the winter rains, like the spring rains that water the earth."*

나는 임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For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and acknowledg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 호세아는. . .

구약성경의 예언서는 대 예언서 4개와 소 예언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소 예언서에 속하며 그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학자들의 논의에 의하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구분은 신학적 의미나 중요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서는 책의 분량이 가장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소선지서 12개 중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다니엘과 분량이 비슷할 정도로 책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누가 더 중요하느냐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12소선지서는 각기 분리된 책이 아닌 한 권의 통일성 있는 책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히브리어 성경의 각 책들은 중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전통이 있는데(ex. 창27:40, 출22:27 등) 12소선지서에는 각각의 책 중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열두 권의 중간인 미가3:12에 단 한 번 그 표시가 나타난다. 이것은 열두 권이 한 권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흐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안에는 희망과 기대, 절망과 좌절이 담겨 있는데, 각각의 예언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보면 각 선지서의 메시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선지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3. 12소선지서의 키워드: ‘회복’

#### - 무너짐의 시작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시절에는 바로의 딸을 따라감으로 이집트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바로 같이 변해 버린 왕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상12:11)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폭력과 억압의 정치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렸다.

솔로몬이 남과 북의 분열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합에 의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로몬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집트 바로의 딸을 따라가면서 이집트화 되었다면, 아합은 바알의 땅인 시돈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땅으로 만든 것이다. 바알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역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상숭배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증상은 고스란히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 회복을 위한 결단을 담은 책

12소선지서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회복과 회복 후 또 다시 시작되는 타락의 악순환을 다루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인 순서상으로는 대예언서인 이사야서(웃시야왕이 죽은 후부터 히스기야까지, 약 BC740-700년)보다 호세아서(여로보암 2세, 약 BC793-753년)가 앞선다. 그러나 성경은 세 권의 대예언서를 앞에 두고, 12소선지서를 따르게 함으로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권의 대예언서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만큼 회복에 대한 메시지 또한 그에 상응하는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이상은 12소선지서를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예언자의 이름을 딴 책이 16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명은 남 유다사람입니다. 그중에 유일한 북이스라엘 사람은 호세아 뿐입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호세아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알리’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 살면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이죠.

호세아 1장 1절을 보세요.

웃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끝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시대에 대한 설명. . . .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그들의 회개를 외친 이스라엘 최대의 예언자인 호세 아는 브에리의 아들이요(호1:1) 북왕국의 사람이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본 명이기도 하며 (민 13:8),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기도 하다(왕하 15:30). 예언자 호세아에 대해선 본서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어 그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적 배경을 잘 알수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호7:4에 근거하여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매우 음탕한 아내와 살면서 세 아들 딸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매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호1:4-5, 호1:6-7, 호1:8-9. 세 자녀까지 둔 고멜은 타락하여 정부와 함께 사는 것을 호세 아는 그래도 사랑하여 정부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데려왔다.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이 것이 사실인가 비유인가를 두고 논란한다.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로보암 2세의 말년이었다. 이사야 보다는 좀 전이요 아모스 보다는 좀 후다. 그가 활동한 시기의 유다의 왕들은 웃시야,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등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12주 동안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왜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순히 싱거운 사람이라는 마음보다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른다면, 그 부르는 이름에 부르심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저를 ‘목사님!’하고 불렀다면, 남편과 아빠로 부르거나 교수로 불렀다면, 그 호칭에 따라 기대가 틀리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역시 그 호칭에 따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들을 통해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단서가 되는 ‘부르심’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구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읊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읊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읊란함이니라 하시니

얼핏 보아도, 이해가 안 되서 자꾸 드려다 봐도 역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이유로 호세아를 부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되는 선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과 이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긴장관계’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바로 이런 긴장관계에서 시작되고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의 ‘*understanding*’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trust*’라고 말입니다.

신뢰하면 순종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저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만일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떼어 놓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사명들이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mission impossible’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선포가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선지 동산’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신학생들의 마음에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선지자적 의식’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80년 대 초반에만 해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고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고난을 당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필연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시대정신’은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고민하며 ‘소망’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경제적’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 내고, 그것이 마음이 움직이면 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공약도, 어떤 정치적 전략도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신문에서 그런 칼럼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던 때,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참 잘살게 됐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경제 민주화가 인간들의 근본적인 이기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 정부에서는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주도하에 개혁을 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규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보지만, 영악한 인간들은 온갖 법을 피해갈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제도도 실행해 보고, 온갖 법률로 규제를 해 보지만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도와 이념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입자 보호를 위해 10년 임대를 보장해 주려고 해도, 미리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소용이 없고, 집값을 안정화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온갖 제도를 만들어 놔도 ‘풍선효과’라는 말처럼,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땅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기꺼이 바보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들은 그래서 늘 시대를 거슬렸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에게 두 개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에 자신의 뜻을 꺾고 말씀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시대에 불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이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회복: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 .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 받은 명령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가 매춘부와 결혼을 하라니요, 게다가 아이를 낳으라니요. 물론 힘들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한 부분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신부’로 불려 구원하셨고, 출애굽한 후 겪었던 광야의 시간은 신혼여행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지키듯, 가장이 가정을 지키듯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님’에 점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친밀하기에 그렇게 ‘님’이 되지만, 뒤돌아서면 아무 관계도 아닌 듯이 ‘남’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촌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가까운 사이 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부부와 같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사이에 파탄이 난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편을 쫓아 바람이 나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듯이,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인 우상을 숭배하며 바람이 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를 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신뢰를 잃고 부부관계가 끝나면 ‘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그리고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방법입니다. 호세아 6장 3,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려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일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1-3장 까지 호세아의 가정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율법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음란한 일을 행할 때에도 계속 용서하고, 계속해서 받아주고, 계속해서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가 이런 부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방탕한 아내를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지를 겪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모가 되려면 자식을 나아봐야 하고, 진정한 자식이 되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묵상하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낳은 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르엘은 지명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예후 왕조에 속한 사람으로 이스르엘은 예후 왕조가 탄생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그리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피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후는 우상을 숭배한 아합 가문을 처단하는 혁명으로 시작한 정부니까요.

‘이스르엘’이란 이름을 통해 바알을 섬겼던 왕이 피의 심판을 받았던 거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의 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용서했지만,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심판의 이름이죠.

셋째 아들을 낳자 이름을 ‘로암미’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로’는 부정의 의미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니,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구해 내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과격한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정도 죄를 지었으면 그 정도 벌을 받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부정한 아내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줘도 또 죄를 지으며 만들어 낸 부정한 자식들을 보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수치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생기니 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려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무섭게 범죄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를 ‘고멜’과 같았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제사를 원하시지 않았고 기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함께 살지만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속뜻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촉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부자간의 정을 끊자’ ‘호적에서 파 내자’ ‘그만 집을 나가라’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마지막 호소에 가까운 절규가 아닐까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다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은 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 2)호세아가 다른 사람에게서 아내를 되사다(3:1~5)

고멜은 남편과 가족을 떠났으며, 분명 자기 고객에게로 갔을 것이다. 시적 탄식의 형태로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평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불평과 흡사하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2:2)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두 번째 기이한 명령을 내리신다. 호세아는 다시 한 번 고멜을 사랑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순종해야 했다.

이때까지 고멜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 아마 그녀는 그에게 매춘해서 받은 수입을 바쳤을 것이고 그는 그녀에게 방과 침대를 주고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관계였든지 상관없이 호세아는 노예를 사듯이 그녀를 다시 사야 했다. 호세아는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고멜 반을 지불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계속 현재 상태를 고수하면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약도 주고 있다.